한국동굴학회지, 2007, 79, 17~30

영월하동 고씨동굴과 난고 김삿갓 시선의 문학외적 학술평가

소대화*

Art and Science Revaluation on Literary Outwards of Kim SaKat related with Gossi Cave in Youngworl

Soh, Dea-Wha*

ABSTRACT - Gossi-cave, which is Natural monument No. 219, originally was called Norigok-cave, but happened Imjin-Japanese war, aborigine and Gossi family took refuse to Norigok-cave. Japanese soldiers set fire to this cave, in result lots of people had been died. And then, this cave was called Gossi-cave because Gossi family only survived during the war. Stalactite, Stone pillar that was created from four hundred million ago harmonized with the others. The length is 6.3km, in 1969.6.4. this cave was appointed natural monument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Korean Speleological Society.

Kim SaKat, a Master Poet(1807-1863) : A Genius with wit and eccentric conduct, a poet who wrote a refined poems with his own dramatic path of life, destructed the format of Chines poem and created a new folk literature. He is Kim SaKat - a wizard of poet, Kim Sakat - a poet wearing conical bamboo hat. Kim Sakat was born in 1807, in the latter part of Chosun period, his antonym was Kim Byung-Yun. He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in the first place when he was 20. Two years later, he set out his life as a wanderer when he realized his winning composition was a criticism on his grandfather.

요약 - 난고 김삿갓의 생애 : 선생은 안동 김씨의 시조인 고려 개국공신 신평의 후예로 순조 7년(1807년) 3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회암리에서 부 안근과 모 함평 이씨 사이의 2남으로 출생하였고, 본명은 병연(炳淵)이고 자는 성심(性深) 호는 난고(蘭皐) 별호는 김삿갓 또는 김립(金笠)이다. 순조 11년(1811년)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 때 조부 김익순이 선천부사로 있으면서 홍경래에게 항복, 역적으로 몰려 폐족처분을 받아 가족이 영월로 옮겨와 은둔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모친은 자식에게 조부의 사연을 감추고 글을 가르쳤으며, 20세 되던 해 영월 동헌에서 백일장에 응시하여 조부를 비판하는 글로 장원이 되었다. 그 후에 조부라는 사실을 알고 자책과 통한을 이기지 못하여 22세에 집을 나서 방랑생활을 하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시로 읊어 서민문학의 큰 틀을 마련하였다.

1863년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에서 작고하여 그곳에 묘를 썼으며, 3년 후 둘째 아들 익균이 지금의 묘로 옮겨 모셨다. (난고선생 묘 옆에 서있는 안내문에서)

주요어 : 김병연, 난고, 김삿갓, 고씨동굴, 김립, 김익순, 임진왜란, 영월하동

Ⅰ. 서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는 자기 삶을 위하여 의지하고 보호받을 대상을 찾아서 활용해 왔다. 마치 주꾸미가 소라껍질 속에 들어가 살듯이 삶의 주거공간을 만들거나 주위의 대상을 활용하는 지혜는 인간의 전유물만이 아닌 모든 생물체의 공유물인 것 같다. 그래서 인간은 태고적부터 토굴이나 자연동굴을 이용하여 살아왔고, 과학이 첨단화되어 발달한 오늘날에도 비록 한정된 주거공간만이 아니라 산업공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지하공간들은 이용되고 있다. 자기 보호를 위한 수단이나 전쟁으로부터의 방어수단으로는 예나 지금도 큰 차이 없이 이용되

*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고 있으며,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핵에너지로부터의 보호수단으로서도 가장 안전한 기물은 인공 굴을 포함한 자연동굴과 같은 지하공간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같은 인공지하공간이나 대륙과 국가를 이어주는 해저터널은 더 말할 필요 없는 주요 산업시설로써 동굴과학의 범주에 속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남한강의 본류인 동강변의 태화산 중벽에 뚫려 있는 고씨동굴을 고찰하며, 난고 김삿갓 시문학이 탄생하는데 절대적 원인으로 꼽히는 그의 방랑생활과의 인과관계로부터 과학적 지혜가 해학적으로 융해되어 담겨있는 문학의 문학외적 재평가를 통하여 동굴과학만이 아닌 종합과학으로 그를 풀어 분석해보는 김삿갓의 학술 및 과학문화 재조명과 이를 통한 새로운 창조문화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Ⅱ. 고씨동굴과 주변 문화시설

고씨동굴은 영월읍에서 영월화력발전소 쪽으로 약 1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下東面) 진별리(津別里) 산 262번지에 있는 천연기념물 219호로 지정된 석회동굴로써, 오랜 세월 동안에 석회암이 지하수나 빗물에 녹아 이루어진 동굴이다.

지역의 개관을 살펴보면, 강원도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은 태백시, 북쪽은 정선군과 평창군, 서쪽은 횡성군과 원주시, 남쪽은 충청북도 제천시와 단양군 및 경상북도의 영주시, 봉화군 등과 접하고 있으며, 영월군의 면적은 1,127.36㎢이고, 총인구는 4만3,286명(2004년 4월 기준)이고, 2읍 7면 57개 법정리로 이루어져 있고, 군청 소재지는 영월읍 하송리이다.

주변의 자연환경은 서북쪽에 차령산맥, 남동쪽에 태백산맥이 뻗어 있고, 최고봉은 백운산(해발 1,426m)이며 영월읍은 최저구릉지대로 해발 200~500m의 분지를 이룬다. 주위에 두위봉, 태화산, 운봉, 구룡산 등이 있다. 이들 산지 사이를 남한강의 지류인 주천강, 평창강 등이 심한 곡류를 이루면서 영월읍에서 남한강 본류인 동강과 합쳐지는 지형을 이루고 있다.

지역의 관광 구경꺼리로는 제1코스로 장릉 → 보덕사 → 금몽암 → 선돌 → 곤충박물관 → 영월 책박물관 → 요선정, 요선암 → 법흥사 → 더덕공장 (6시간 소요), 제2코스로 곤충박물관 → 장릉 → 청령포 → 래프팅(문산~섭새) → 국제현대미술관 → 별마로천문대, 제3코스로 김삿갓유적지 → 조선민화박물관 → 묵산 미술관 → 고씨동굴 → 래프팅(고씨동굴~단양, 영춘) (6시간소요) 등이 있다.

한편, 고씨동굴은 이 동굴을 소개하는 안내문에서 굴의 이름과 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광개발 굴의 유래를 잘 알아볼 수 있다.

안내문에서 "이 동굴의 이름은 원래 노리곡 동굴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원주민과 고씨 일가가 피난하였을 때 왜군이 동굴입구에 불을 질러 모두 숨지고, 고씨만 살아남았으므로 고씨동굴이라 부르게 되었다. 4억 년 전부터 생성된 종유석, 석주 등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 굴의 길이는 총연장 6.3 km에 달하며 1969년 6월 4일 한국동굴학회의 답사로 동굴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적혀있다.

임진왜란은 1592년(선조 25년)에서 1598년(선조 31년)까지 2차에 걸쳐 왜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싸움으로 임진년에 일어났다 하여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 하며, 정유년에 또다시 쳐들어온 싸움을 따로 정유재란이라고 한다.

조선은 선조 때에 접어들어 양반들의 당파싸움으로 국방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고, 이이(李珥)가 '십만 양병설'을 주장하여 국방의 중요

성을 역설했었으나 도리어 지배 계급들은 이를 배척하는 실정에 있었다. 그처럼 조선이 안일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은 대륙으로의 진출 꿈을 한반도와의 전쟁을 시작으로 대륙에 이어갈 계획을 이룩해 보려는 새로운 국면을 일으키게 되었던 씻어지지 못할 아픔의 전쟁이었다.

이 때 전쟁을 피해 피난길에 들었던 동굴 주변의 주민과 고씨 일가가 피난처로 활용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고씨동굴의 유래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미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간의 동굴 이용을 상정해 볼 수 있으며, 그 이전 원시사회에서의 관계도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이보다 훨씬 뒤인 1800년 초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난고 김삿갓의 방랑생활과는 어떤 인연이 있었으며, 방랑 중에 이 굴을 이용했었을 지도 모른다는 추정적 관계설정에서 "고씨동굴과 난고 김삿갓 방랑기의 문학외적 과학재평가"라는 주제를 던져놓고 내심 고민 아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고충을 토로해 본다.

여기서 잠시 고씨동굴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월의 태화산을 끼고 도는 동강으로 불리는 남한강변의 절벽에 위치한 면적 48만 762㎡, 길이 약 6km의 동굴이다. 태화산은 1,027m 높이의 산으로 태화산성의 석축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산이다. 태화산성은 태화산 정상에서 동북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부분의 지능선인 해발 900여m의 봉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서남북의 길이와 너비가 약 400m, 둘레는 1,200m 쯤 되는 산성입니다."(영월관광홈페이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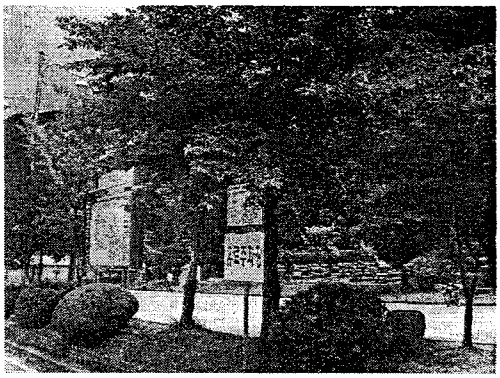
이곳에 있는 고씨동굴은 임진왜란 당시 왜병과 싸운 고씨(高氏) 가족들이 한때 그곳에 피신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굴 이름으로 되었다고 한다. 이 동굴은 약 4억 년 전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하는데 굴 안에는 4개의 호수를 비롯하여 3개의 폭포, 10개의 광장 등이 있으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종유석·석순·석주들이 조화 있게 배치되어 장관을 이룬다. 동굴 안의 기온은 항상 16℃를 유지하며, 박쥐·흰새우·흰지네 등 동굴동물이 서식하고 그 밖에 신속(新屬) 1, 신종(新種) 7, 신아종(新亞種) 7의 동물이 새로 판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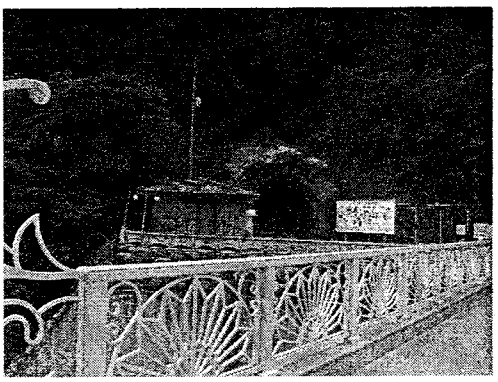
동굴을 사랑하고 탐색하는 동굴인의 위치에서 무엇보다 동굴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을 다른 사물로 구성하고자 하는 생각은 나만의 고집이 아니라 우리 동굴동호인의 공통점이라고 보아 벗어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먼저 고씨동굴을 그려놓고 그 주위에 영월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화시설들을 둘러보는 순서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이는 천재시인 난고 김삿갓 시선의 주위를 살펴보는 내용으로 전반기학술발표논문을 꾸며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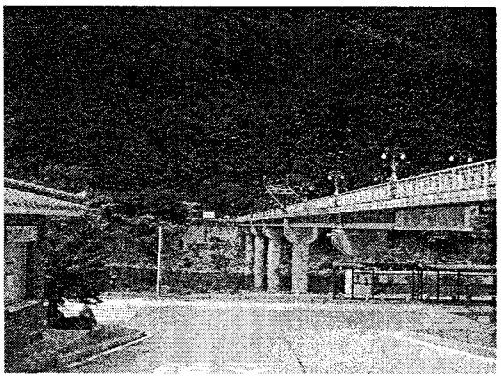
백과사전의 정보를 인용해 보면, '문학(文學)이란 1)자연과학 및 정치·법률·경제 등에 관한 학문 이외의 학문의 총칭으로서 곧, 순문학·사학·철학·언어학 등을 말하며, 2)정서나 사상을 상상의 힘을 빌려서 언어·문자로 표현한 예술 및 그 작품을 의미한다.'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면, 과학도로써 내 어찌 감히 그 주변을 탐색해 볼 수가 있을까마는 뒤늦게 본 난고선생의 이모저모에서 그의 서민사상에 푹 빠져든 탓에 용기를 내어 그의 문학외적 과학재평가라는 우회방법을 택해 그의 주위를 넌지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영월 하동 땅을 찾게 되었고, 아래의 사진들은 이번 방문에서 찍은 고씨동굴의 외관사진과 일부 굴 내부의 장면을 퍼온 사진들로써 예전과는 너무 많이 변해버린 꾸며진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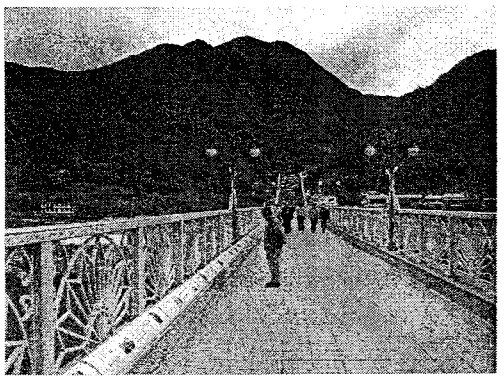
아래의 사진들은 고씨동굴의 입구 주변경관과 내부의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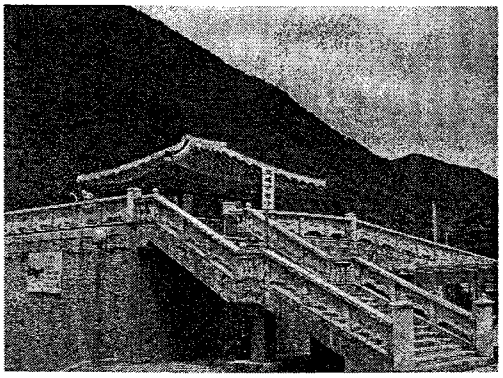
[고씨동굴 주변과 내부의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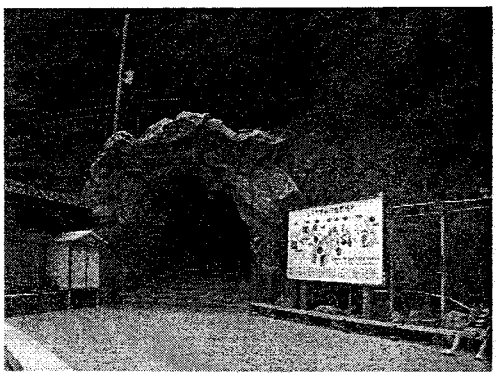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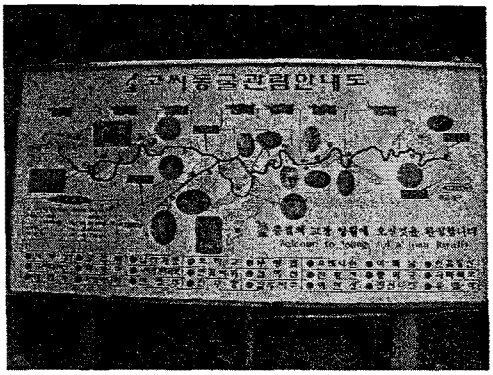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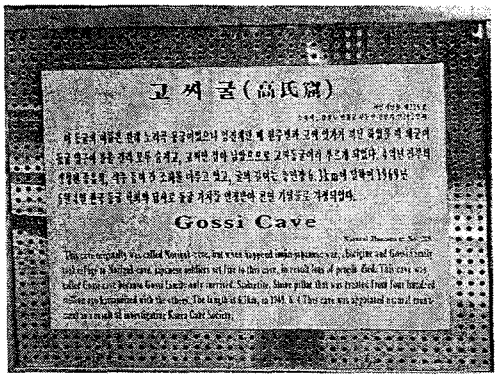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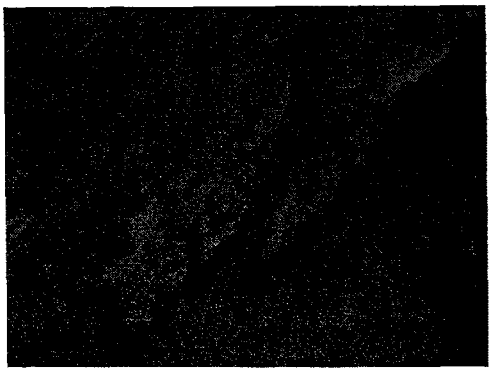









고 씨 굴(高氏窟)
Gossi Cave



Ⅲ. 난고의 생애와 서민문학

1. 난고 김삿갓의 생애

이 시대에 알려져 있기로는 '김삿갓' 또는 '김삿갓 북한방랑기', '떠나가는 김삿갓' 등의 대명사 같은 이름이 더 알기 쉬운 표현으로, 난고 김병연(金炳淵)이라면 쉽게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보다 오히려 방랑시인 김삿갓의 노래 말은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다음은 노래 말의 일부를 적어본 노래가사 말이다.

죽장에 삿갓 쓰고 방랑 삼천리,
흰 구름 뜬 고개 넘어 가는 객이 누구냐,
열두 대문 문간방에 걸식을 하며,
술 한 잔에 시한수로 떠나가는 김삿갓.

세상이 싫든 가요 벼슬도 버리고,
기다리는 사람 없는 이 거리 저 마을로,
손을 젓는 집집마다 소문을 놓고,
푸대접에 껄껄대며 떠나가는 김삿갓.

<방랑시인 김삿갓 : 김문응 작사 / 전오승 작곡 / 명국환 노래>

시선 김삿갓 선생의 생애에 대한 많은 내용과 자료를 모른다하더라도 방랑시인 김삿갓의 노래 말을 들어보면 어렴풋이 그의 생애를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노래가사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서민적이면서도 그에 대하여 잘 묘사해 걸맞아 어울린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난고 시선의 생애로부터 작품의 문학적 의미와 가치 등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고, 여러 경우의 토론회, 세미나발표회 등을 거쳐 그의 서민적 사회풍자 철학을 연구 고찰하였고, 이들의 일부가 영월읍 하동면 와석리 노루목 일원에 묻혀있는 그의 묘지와 함께 '김삿갓 문학관'을 비롯한 수많은 시비와 작품 및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기록매체에 올려 진 자료의 일부를 확인하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다음넷'에 올려진 김병연의 생애에 관한 몇 가지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다음넷의 백과사전'에 올려진 김병연(金炳淵)의 자료 본문

1807(순조 7) 경기 양주 ~ 1863(철종 14) 전라 동복(同福). 조선 후기의 방랑시인 : 본관은 안

동. 자는 성심(性深), 별호는 난고(蘭皐), 호는 김립(金笠) 또는 김삿갓. 그의 일생은 여러 가지 기록과 증언들이 뒤섞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전해온다. 6세 때에 선천부사(宣川府使)였던 할아버지 익순(益淳)이 평안도농민전쟁 때 홍경래에게 투항한 죄로 처형당하자, 그는 황해도 곡산에 있는 종의 집으로 피했다가 사면되어 부친에게 돌아갔다. 아버지 안근(安根)이 화병으로 죽자 어머니는 자식들이 폐족(廢族)의 자식으로 멸시받는 것이 싫어 강원도 영월로 옮겨 숨어 살았다. 이 사실을 모르는 그는 〈論鄭嘉山忠節死嘆金益淳罪通于天/ 논정가산충절사탄김익순죄통우천〉 이라는 할아버지 익순을 조롱하는 과시(科詩)로 향시(鄕詩)에서 장원하게 되었다. 그 뒤 어머니로부터 집안의 내력을 듣고 조상을 욕되게 한 죄인이라는 자책과 폐족의 자식이라는 세상의 멸시를 참지 못해 처자식을 버려두고 집을 떠났다. 자신은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면서 삿갓을 쓰고 방랑했으며, 그의 아들이 안동·평강·익산에서 3번이나 그를 만나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매번 도망했다고 한다. 57세 때 전라도 동복현의 어느 땅(지금의 전남 화순군 동복면)에 쓰러져 있는 것을 어느 선비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 거기에서 반년 가까이 살았고, 그뒤 지리산을 두루 살펴본 뒤 3년 만에 쇠약한 몸으로 그 선비 집에 되돌아와 죽었다고 한다.

그의 시는 몰락양반의 정서를 대변한 것으로 당시 무너져가는 신분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풍자와 해학을 담은 한시의 희작(戱作)과, 한시의 형식에 우리말의 음과 뜻을 교묘히 구사한 언문풍월이 특징이다. 구전되어오던 그의 시를 모은 〈김립시집〉 이 있다. 1978년 후손들이 광주 무등산 기슭에 그의 시비(詩碑)를 세웠고, 강원도 영월에도 전국시가비동호회에서 시비를 세워 삿갓시선의 혼을 위로하기라도 하는 듯싶다.

이와 함께 난고 시선의 묘역안내문에 적혀있는 생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묘지 입구에도 그의 생애를 써 놓은 안내문이 있지만,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대표적 생애를 그린 것으로 보아 옮겨본다.

난고 김병연(김삿갓)의 생애 : 선생은 안동김씨 시조인 고려 개국공신 삼중대광태사(三重大匡太師) 선평(宣平)의 후예, 휴암공파계 제24대 손으로, 1807년(순조7년) 3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회암리에서 부 안근(安根)과 모 함평이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본명을 병연(炳淵), 자는 성심(性深), 호는 난고(蘭皐), 별호는 김삿갓 또는 김립(金笠)이다.

선생 6세 때 선천부사인 조부 익순(益淳)이 홍경래 난 때 투항한 죄로 처형당하고, 조모 전주이씨는 광주의 관비로 축출되었으며, 부친은 남해로 귀향을 갔다. 선생은 형 병하(炳河)와 함께 노복 김성수의 등에 업혀 황해도 곡산으로, 모친은 아기 병호를 데리고 여주 이천으로 피신하였다.

후일에 조부의 죄가 멸족에서 폐족으로 감형되어 형제는 모친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부친은 홧병으로 죽었고, 세인의 괄시와 천대가 심하자 모친은 가족을 이끌고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로 이주하여 살았다.

선생은 비극적인 가족사를 모르고 자랐으며, 20세 때 한 살 연상인 장수 황씨와 결혼 하였고 그해 영월 동헌에서 실시한 백일장에서 시제 "논정가산충절사탄김익순죄통우천(論鄭嘉山忠節死嘆金益淳罪通于天)"에 대하여 가산군수정씨를 예찬하고 선천부사이자 방어사이던 조부 김익순을 호되게 비판하는 글을 지어 장원을 하였다.

그러나 후일 모친으로부터 집안내력을 듣고 조상을 욕되게 한 죄인이라는 자책감에 영월군 하동면 와석리 어둔으로 옮겨 은둔생활을 하였으며, 22세 때 아들 학균(鶴均)을 낳은 뒤 상경하여 이름을 김란, 자를 이명, 호를 지상으로 바꾸고 안응수의 문객이 되어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24세가 되던 해 권문에 기대어 출세하려는 생각을 단념하고 귀가하여 형 병하에게 아들 학균을 입양시키고 그해 차남 익균(翼均)을 얻었지만 처자식을 남겨둔 채 방랑길에 올랐다. 그때부터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고 자책하며 삿갓을 쓰고 죽장을 짚고 다녔으므로 김삿갓 또는 김립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선생은 금강산 유람을 시작으로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를 방랑하면서 서민들의 애환과 양반들의 잘못된 생활상을 시로 옮겼으며, 도산서원 아랫마을과 황해도 곡산에서는 훈장으로써 글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선생은 차남 익균이 여러 번 찾아와 귀가하자는 간청을 끝내 물리치고 방랑하다 54세 때에는 전라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에서 쓰러졌는데, 어느 선비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간병하여 그곳에서 반년가까이 지냈으며, 이후 지리산 등을 방랑하다 3년 만에 쇠약한 몸으로 선비의 집에 다시 돌아와 1863년(철종14년) 3월 29일(57세) 별세하여 마을 동편 산록에 안장되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차남 익균이 지금의 묘인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와석리 노루목에 이장하였다. (난고선생 묘역안내문에서)

(난고의 묘역안내문에서 0.4km 떨어진 등산로의 산중턱에 김삿갓 친필바위가 있으며, 이곳에서 1.3km 더 올라가면 선생이 살았던 김삿갓 주거지가 있다. 방랑생활을 끝으로 난고 선생이 운명한 전남 화순군에서도 추모의 시비를 건립하였다.)

이러한 난고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 시대에 억수로 복도 못타고 태어난 사람 중의 하나였구나 하고 여러 가지 작품 속에 스며있는 그의 사상과 실천적 의미의 생각들을 더듬어 보면서 난고 김삿갓과 노자의 사상을 비교해 본다.

노자와 김삿갓의 공통점 - 자료 '다음신지식'

1. 노자 사상은 자연의 순리에 따름을, 부드러움을 강조합니다. 노자는 초나라 사람인데. 초나라는 중국의 남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방의 황량한 기후와는 다르게 온화하죠. 이러한 점이 자연 속에 안주하며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강조한 노자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는 주나라의 수장실사(도서관 장서실 관리)를 지냈습니다. 노자는 그의 직책상 많은 서적을 읽었을 것이고 역사상의 성패, 존망, 화복에 대해 폭 넓은 지식 또한 도의 경지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분쟁은 욕심에서 시작되고, 모든 죄악은 인위로 말미암아 생기게 됨을 알고, 그는 참되고 소박한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노자는 도와 덕, 도덕을 연마하여, 학문의 높음을 스스로 숨겨 이름이 나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그는 주나라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주나라의 부패와 기울어감을 보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변방 함곡관에 이르렀을 때 그곳 수비대장 윤희가 노자에게 가르침을 간곡하게 부탁하였는데 이에 노자는 함곡관에 잠시 머물며 도와 덕, 상·하편으로 나눠진 5천여 자의 도덕경을 남겨주고 떠났고 그 후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자의 저서는 상. 하 두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편의 첫 구절은 道可道 非常道(도가도 비상도-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다.)이고, 하편의 첫 구절은 上德不德 是以有德

(상덕부덕 시이유덕-최상의 덕은 스스로 덕이 있다고 여기지 않으니 이 때문에 덕이 있는 것이다)입니다. 상편의 첫 구절 도와 하편의 덕을 뽑아 노자의 저서를 도덕경이라고 합니다.

2. 김삿갓 역시 당시 조선사회의 전국을 두루 유랑하였으며, 자신을 비롯하여 이어지는 모든 인간사의 내용과 사물을 시제로 시운을 그려 락운성시(落韻成詩)하였다. 또한 난고 시선의 과시는 후세 과거 지망자들의 교범으로 사용되었을 만큼 뛰어날뿐더러 특히 평민들의 애환을 담은 생활상을 시로 읊어 빛나는 서민문학을 남겼으며, 또한 그 시대 양반사회의 벗어남과 사회상을 지탄하듯 풍자하는 새로운 문학상을 세우며 세인들의 또 하나의 삶의 지표를 구축하는 데에도 크게 공헌을 하였다.

뛰어난 지성인 이었으나,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자연 속에서 서민들과 어울려 자신을 낮춰 생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설 김삿갓(2007.4. 경덕출판사) : 김삿갓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던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팔도강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 방랑시인의 이미지는 사실 팔자 좋은 양반이라는 상(像)을 갖게 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출세가도를 달리지 못한 데에는 무슨 곡절이 있다던데 자세히는 모르겠고. 그 정도의 배경 지식만을 가지고 있던 김삿갓, 김병연을 소설로 만났다.

소설의 시작은 홍경래의 난. 뜬금없이 왠 홍경래의 난인가, 비슷한 시대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라 장황하게 풀어 놓나 싶더니, 놀랍게도 김삿갓과 연결된다. 김삿갓이 과거 응시를 포기하게 되고 방랑의 계기가 된 쓰라린 사건. 영월 백일장의 시제는 홍경래의 난에서 치욕스러운 행위를 했던 어떤 인물의 죄과를 논하라는 것이었고, 명문으로 1등으로 당선된 김삿갓은 그가 논한 죄인이 바로 그의 조부임을 알게 된다.

그를 평생 주유케 했던 것은 씻을 수 없는 패륜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실력이 있어도 절대로 주류 사회에 편입할 수 없다는 자괴감이었을까. 소설 속 그의 행적을 뒤따라 가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 한편 안타깝게 생각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더 멋진 선택을 할 수 없었는가 하는. 그러나 그건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았기 때문은 아닌지.

역사 소설을 읽는 재미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역사적 인물의 생애를 놀랍도록 생생하게 추적해볼 수 있었고, 18세기 전반의 시대상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었다. 특히 효명세자와의 만남 부분은 픽션일지라도 가장 흥미로운 설정이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초점이 김삿갓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또 하나, 김삿갓의 절묘한 시를 소설의 여러 장면에서 만나게 되는 재미는 빠트릴 수 없다.

[http://www.aladdin.co.kr/blog/mypaper/1259131]

다시 보는 김삿갓 : 김삿갓 그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왔지만 어떤 인물인지 전혀 정보가 없었다. 가끔 노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저 뛰어난 능력을 뒤로하고 방랑의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 내 지식의 한계이다. 역시 그러다보니 흥미로운 이 책에서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

사실 첫 장을 읽어 내려갈 때는 예전에 역사를 멀리하던 나와 마주했다. 이 책을 읽기가 약간 힘들었다. 사실 제일 첫 챕터에서는 김삿갓의 조상의 얘기가 나오다보니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다시 두 번을 읽었다. 읽고 나니 이해

가 쉽게 되었다. 외국이름만 비슷해서 헷갈리는 줄 알았더니 역시 난 이름에 젬병인지 한국 이름도 헷갈렸다. 역시 인물의 이름을 헷갈리다보니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종종 있었다. 다음부터는 이름과 간단한 특징을 포스트잇에 써두고 읽어야겠다. 고정된 인물이 계속 나오는 책이라면 처음엔 힘들지만 차차 적응이 쉽게 되지만 이런 역사물은 아무래도 여러 인물들의 등장이 있어서 그런지 쉬이 이름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힘든 점만 빼면 글을 잘 모르는 내가 보기에도 구성도 탄탄했고 역사에 전혀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책장도 잘 넘어갔다. 그렇고 전개가 지지부진하거나 순식간에 이뤄지지도 않았으며 딱 알맞았다. 비록 소설이라 할지라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내가 그동안 술만 즐기는 사람으로 알았던 김삿갓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왜곡된 정보와 편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꾸는 기회가 흔치 않지만 이 책으로 인해 참다운 의미를 되찾았으며 역사 속 정황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다. 역시 이래서 학교 다닐 시절에 역사 공부를 해둘 걸 하는 후회가 밀려 왔다. 그리고 어찌 보면 세상을 등지지 않고도 살 수 있었지만 그만의 올곧은 신념과 지조가 부럽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여자의 입장에서 남편이 저러는 것은 아내한테 많은 상처를 주고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당연 내 남편이 그런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말이다. 남편감으로는 빵점이지만 그는 훌륭하다. 그리고 길이 남아 있어야 할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한권의 책으로 작가의 생각을 풀어내기에 무리가 있었겠지만 전혀 난 억지로 붙이거나 억지로 줄인 듯한 느낌을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나에게 꼭 맞는 좋은 책으로 나의 좁은 머리를 트이게 해준 의미 깊은 시간을 가지게 해주었던 책이었다.

[http://www.aladdin.co.kr/blog/mypaper/1123929]

김삿갓 일대기 : 최근 역사를 토대로 쓴 소설 혹은 역사 관련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대물의 이야기 방식에 익숙해있던 터였지만 우리의 지난 과거사를 토대로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의 필치는 보여주는 저자들의 이야기 방식이 상당부분 흥미롭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많이 알지도 그 동안 일말의 관심을 보인 적도 없다. 다만 뒤늦은 관심이라고 해야 할까.

'김삿갓'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그의 생애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잘 모를 뿐이다. 귀에 익숙한 이름인 김삿갓이란 인물의 삶을 실제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책이다. 조선시대의 인물이자 일명 방랑시인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그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만한 책이다.

역사시간에 배웠던 홍경래의 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과거에 일어났던 한 시대적인 상황이나 일에 대한 기승전결을 이해하면 더 쉬울 것이다.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원인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김삿갓이 방랑시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과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상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으니 자신 스스로 그 앞에 놓인 갖가지 장애 앞에서 그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일이 아니었는지. 과거나 현재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들

에 대한 시각차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그 틀을 좁힐 수 있는 것도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권력 앞에서 초라해지는 이들, 부정과 부패의 갖가지 만행들을 바라볼 수 없었던 김삿갓은 방랑의 삶을 선택한 것이 최선이었으리라.

장원급제한 인물이지만 그의 뜻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현실, 역적의 자손이라는 미명아래 그의 삶이 어떻게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수 있었을까. 그를 바라보는 이들에 대한 마음도 두 갈래로 나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생을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마음 그리고 다른 한 편에서는 현실 왜곡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으리라. 한 인물의 삶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규정지어 말할 순 없을지라도 분명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한 인물에 대한 기록, 한 인물에 대한 전기가 이 책에 담겨있다.

[http://www.aladdin.co.kr/blog/mypaper/1121168]

Ⅳ. 생애와 문학외적 측면

난고 시선의 생애와 활동에서 문학외적 학술 측면을 살펴보고자하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으나, 짧은 시간에 깊이 다루지 못하여 우선 그 중 일부에 국한되는 선에서 훑어보았다.

- 피신생활지와 고씨동굴과의 관계
- 방랑생활의 순회지역과 지리학적 연계활동
- 난고 김삿갓의 시문학 : 삶과 시문학활동에서의 과학적 사고 분석
- 선비가문으로부터 방랑생활에 이어지는 심리학적 분석
-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고 양반생활상의 질타 방식으로 사회적 불만과 자기 스트레스 해소에 해학적 기지(奇智)와 지능적 기교로 과학적 대응 방법 개발 적용
- 홍경래 난의 배경과 1800년 초기의 조선사회상 및 김삿갓 방랑행적

너무 많이 변한 고씨동굴의 주변 : 고씨동굴의 모습은 상당히 가공적인 면이 많이 보인다. 우선 굴 입구의 모습이 인공바위의 모습으로 지나치게 가공되었고, 전용진입로로 사용되는 '고씨굴교' 역시 동굴을 진입하기 위해 별도로 가설된 육중한 콘크리트철교가 그렇다. 이전에는 굽이쳐 흐르는 동강에 끌배를 띄워 로프를 잡아당기며 강을 건너는 운치를 맛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현대식 다리가 놓여있어 편리하고 말끔한 경관에 보기 좋은 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꾸며졌다는 생각이 앞을 가린다. 다리가 시작되는 입구에서도 입장권을 받는데 그것은 오직 다리위로 강을 건너는 목적의미 외에는 산을 오르거나 넘는 것 밖에는 없다. 굴 맞은편의 주차장이나 여러가지 편의시설도 눈길을 끈다. 숙박시설과 식당이 대부분이지만, 이곳에서 먹어본 얼큰한 올갱이해장국의 맛은 일품이었다. 다리위에서 강을 아래 위쪽으로 내려다보니 동강의 맑은 물과 주변의 강 흐름이 눈 안에서 그림을 그린다. 강가에서는 젊은이들의 래프팅(rafting) 레저스포츠 팀들이 래프팅을 준비하고 있다. 어쨌든 고씨굴을 앞에 놓고 다리를 건설하고 편의시설물들이 설치되고 동강과 어우러져 레저스포츠와 함께 종합관광이 성숙해 가는 모습은 비단 관관개방 동굴의 차원을 넘어 조용한 강원도 영월의 면모를 여러 면에서 바꿔주고 있는 현장 모습중의 하나이다.

고씨굴과 김삿갓 행로의 어떤 관계를 찾으려

고 했는데, -- : 고씨굴과 김삿갓 문학행적이나 방랑행로의 어떤 관계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 결국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김삿갓 시선이 자신의 조부인 김익순이 홍경래의 난을 맞아 적에게 투항했던 대죄로 뒤에 참형을 당했던 사실을 알고 난 후의 강한 수치심과 영월백일장에서 첫 응시를 하여 시제를 풀면서 자신의 할아버지인 줄을 모른 채 그를 호되게 욕할 수밖에 없었던 죄책감등으로부터의 청천벽력 같은 충격, 그로인해 결국 스스로 양반출세가 어렵다는 심한 고뇌속의 최종 결단으로부터 방랑생활을 시작으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또한 그 시대의 엄격했던 사대부사회의 시대적 정황으로 보아 어려운 방랑 길 속에서 걸식을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녔던 상황으로 보아 때로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움막집이나 토굴 같은 자연공간에 의지하고 살아갔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강한 추측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방향과 내용을 주인공인 김삿갓의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자연동굴의 하나인 고씨굴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씨굴과 김삿갓'이라는 주제로 설정하여 고찰하여 보았으나, 아무런 단서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정황은 또 하나의 추측을 자아내게 만들어서, 당시 깊은 유교사상과 사대부 시대적 사회상으로 볼 때 양반계급과 상놈계층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었고, 또한 양반사회의 수준평가가 주로 한학과 유학을 바탕으로 충효사상이 강요되던 한자문화권의 고고한 문장력과 시 및 시조문학으로 하여금 평가되었기 때문에 김삿갓과 같은 천재적 문장력을 가진 우수한 수재형의 방랑객은 오히려 서민계층이나 양반계급을 막론하고 환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방랑객의 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굳이 버려진 움막집이나 토굴에 의지해야할 어려움을 기꺼이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추정되며, 그렇기 때문에 조선팔도를 누벼 돌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방랑을 할 수 있어서 처자의 간곡한 권유와 애끓는 간청을 넘는 강요에도 불구하고 방랑생활을 계속 고집하지 않았는가하는 추측상상도를 그려 보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당시의 고씨굴과 주변 지리적 정황으로 볼 때, 영월 하동땅에서 태화산을 휘감고 돌듯 굽이쳐 흐르는 동강의 수직 산수 벽에 걸려있듯 뚫려있는 고씨굴을 동강 물을 건너다니며 이용할 수 있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에 그의 방랑생활 중에 혹시라도 이용될 수도 있었던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하는 정황분석이 이루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으로 그의 작품 속에서도 그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으로 확신되어 진다. 그러한 확신 중에는 또 하나의 이유로써, 그의 몸에는 역시 대통 같이 고집스런 사대부가의 양반의 피가 유전되어 흐르기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그 당시에 김삿갓의 어머니와 함께 피신처를 구해 도피생활을 했던 주거지에서 인근에 있는 영월하동의 고씨굴과 김삿갓 시선의 방랑생활의 관계는 서로가 비교적 인근생활권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상관성이 엮어지지 않았음을 결론으로 밝힐 수밖에 없음을 매우 다행스럽고도 한편으로는 아쉽게 생각한다.

이와 반하여, 난고 김삿갓 시선의 시속에 넣어진 그의 사상과 사물을 보는 관점 및 그의 생각을 엿보았을 때 그는 자기 아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대변자 역할을 하였다는 느낌이 절로 생기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기기묘묘한 문장력을 끄집어내어 정황에 적절한 표현을 쓸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에 필자자신도 절로 반해버리고 말았다.

또한, 한시나 우리말 구조에도 없는 문장조합과 혼합표현기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고유의 해학 스러움을 그려낸 시에서는 더욱더 그의 천재적 재능을 느끼며 살펴보게 된다.

V. 결론

오늘이라고 난고 김립선생의 처지와 유사한 경우가 없으랴마는 그토록 자신의 조상이나 가족에 대한 죄의식 또는 자책감을 통감하며 통한의 과오로 인한 사회적 세인으로부터의 괄시와 천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요즘 말로 거센 왕따를 당했을 때, 과연 자신의 처지를 진실하게 뉘우치며 생애를 바쳐 속죄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까하는 강한 의문을 떨칠 수 없으며, 그보다도 삿갓선생과 같이 용기와 재치를 담은 시구(詩句)나 문필(文筆)을 들어 시민이나 관료들과 적극적인 대화로 풀어가는 노력을 쏟아 부을 지혜와 능력을 갖춘 자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에는 결코 긍정적 화답을 보내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끈기있고 진지한 대처 방법보다는 작은 일에도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떨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해나 자살하는 방법으로 쉽게 던져버리는 모습이나 오히려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 질을 하는 역설적 해법을 찾아보려는 현대판 김삿갓이 등장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학적, 인간심리학적 및 종합 과학적 재평가를 대신하여 그의 대표작 몇 작품의 내용 일부를 싣고자 한다.

◈<><>◈

二十樹下 (이십수하) : 스무나른 살 아래

二十樹下三十客 (이십수하삼십객) : 스무나믄 살 아래인 서러운 나그네가,

四十家中五十食 (사십가중오십식) : 마흔 놈 집에서 쉰밥을 얻어먹으니,

人間豈有七十事 (인간기유칠십사) : 인간 세상에 어찌 일흔 일이 또 있으리오.

不如歸家三十食 (불여귀가삼십식) : 집에 돌아가서 설은 밥 먹는 것만 못하네.

粥一器 (죽일기) : 죽 한 그릇

四脚松盤粥一器 (사각송반죽일기) : 네 발 달린 소나무 상에 놓인 죽 한 그릇,

天光雲影共徘徊 (천광운영공배회) :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 함께 감도는구나!

主人莫道無顔色 (주인막도무안색) : 주인께서는 무안하다는 말 하지 마시오.

吾愛靑山倒水來 (오애청산도수래) : 나는 본래 청산이 물에 비치어 거꾸로 다가오는 것을 좋아하느니.

戱贈妻妾 (妻와 妾) : 처와 첩의 동거자

불열불한이월천 (불열불한이월천) : 춥도 덥도 않은 이월 좋은 날에,

일처일첩최감련 (일처일첩최감련) : 마누라와 첩이 남편과 함께 정답게 누워있네.

원앙침상삼두병 (원앙침상삼두병) : 원앙 베개 위에는 머리가 셋 나란하고,

비취금중육비련 (비취금중육비련) : 비단 이불 속에는 팔이 여섯 나란하도다.

개구소시혼사품 (개구소시혼사품) : 입을 벌려 웃을 때는 세입이 품(品)자가 되고,

편신와처변성천 (편신와처변성천) : 몸을 돌려 누우면 그 모양 천(川)자로다.

동변미료서변사 (동변미료서변사) : 동쪽 일

끝나기도 전에 서쪽 일을 벌이고,

갱향동변타옥권 (갱향동변타옥권) : 다시 동쪽으로 향하여 옥권(玉拳)을 쳐주네.

弄處女 (농처녀) : 처녀희롱

(金笠) 毛深內闊 (모심내활) : 털이 깊고 속이 넓은 것을 보니,

必過他人 (필과타인) : 필시 어느 누가 먼저 지나갔으리.

(處女) 溪邊楊柳不雨長 (계변양류불우장) : 개울가 버들은 비가 오지 않아도 절로 자라고,

後園黃栗不蜂坼 (후원황률불봉탁) : 뒤 뜰 알밤은 벌이 쏘지 않아도 잘도 벌어지더라.

犬子 (개새끼) : 속 대신 글로

天脫冠而得一點 (천탈관이득일점) : 天 ⇒ 犬

乃失杖而橫一帶 (내실장이횡일대) : 乃 ⇒ 子

論鄭嘉山忠節死 嘆金益淳罪通天下 (논정가산충절사 탄김익순죄통천하)

曰爾世臣金益淳 鄭公不過卿大夫 (왈이세신김익순 정공불과경대부) : 말하노니 너 세신(世臣) 김익순은 듣거라. 정공은 경대부에 불과해도 충사(忠死)하지 않았는가.

將軍挑李隴西落 烈士功名圖末高 (장군도리농서락 열사공명도말고) : 넌는 농서에서 적에게 항복한 한나라의 이능(李陵)과 같으나, 정공은 그 공명이 열사로서 길이 빛나게 되리라.

---------- , ----------,

---------- , --이하생략---,

---------- , ----------,

天地萬物之逆旅 (천지만물지역려)

造化主人蘧廬場 隙駒過看皆如許(조화주인거로장 극구과간개여허) :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신비한 천지에, 말타고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

兩開闢後仍朝暮 一瞬息間渾來去(양개벽후잉조모 일순식간혼래거) : 천지가 개벽한 뒤에 낮과 밤이 생기고, 무상한 세월은 순식간에 오고 가는데.

回看宇宙億千劫 有道先生昨宿所(회간우주억천겁 유도선생작숙소) : 아득하고 영원한 우주를 생각해 보면,도통한 선인들 지난밤에 자고 간 곳일세.

無涯天地物有涯 百年其間吾逆旅(무애천지물유애 백년기간오역려) : 천지는 무한하나 만물은 한이 있으며, 백년도 못사는 인생 그 속에서 묵어 가는 객주집일세.

蘭皐平生詩 (난고평생시) - 평생을 돌아보며

조소수혈개유거 고아평생독자상(조소수혈개유거 고아평생독자상) : 새도 두지가 있고 짐승도 굴이 있어 보금자리가 있건만, 내 평생 돌아보니집도없이 홀로 외로웠구나.

망혜죽장노천리 수성운심가사방(망혜죽장노천리 수성운심가사방) : 짚신 신고 대지팡이 짚고 천리 길 떠돌며 물처럼 구름처럼 방랑하며 천지사방 가는 곳이 내 집이었다.

---------- , ----------,

---------- , --이하생략---,

---------- , ----------,

참고문헌

1] 권영한 역, 삶의 지혜 '김삿갓 시 모음집', 전원문화사, 2006

2] 소대화, '영월하동 고씨동굴과 난고 김삿갓 시선의 문학외적 학술재평가', 한국동굴학회 전반기학술발표대회 학술지, 2007,06,22